

하늘반 이야기 (6월 3주 ~ 6월 4주)



산소리 숲속학교에도 여름이 왔어요. 6월 방문에서는 산소리 숲속학교 놀이터 신나게 놀고 첨벙첨벙 신나는 물놀이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많지 않았는데도 신이 나서 개구리, 올챙이 어디 있냐며 이리저리 찾고 다니는 아이들이었답니다. 내려가자고 하니 아쉬워하는 얼굴 가득한 모습에 내려와서 마당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 신나게 한 번 더 놀았답니다.^^ 7월에는 물이 많아서 수영까지 할 수 있었음해요. (6월 17일 산소리 숲속학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여름행복학교가 1박 2일 동안 신나게 펼쳐졌습니다. 1박 2일을 하면서 잠을 자야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 없이 잘 수 있는지 물었더니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 학교 날 형님들과 함께 물총놀이, 비눗방울 놀이, 가위·바위·보게임 등을 신나게 하고 가족들과의 바비큐 파티 후 캠프파이어와 신나는 게임 등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 가족들과 안녕~~ 우리 아이들 씩씩하게 방에 돌아와 씻고 쿨쿨 꿈나라로 가고 아침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 둘째 날을 맞이했답니다.^^ 행복학교를 마치고 즐거웠던 일을 이야기 했는데 비눗방울 놀이와 꽃반지 만들기가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행복학교라는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 모두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6월 20일~6월 21일 여름행복학교)



심폐소생술을 해 보기 위해 정읍시 보건소에 다녀왔어요. 우리 몸속에서 피가 이동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 보았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과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양숲 놀이터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미술관에 다녀왔어요. 종이에 고마움, 즐거움, 행복함, 화남 등을 표현해 보고 전시를 했답니다. (6월 26일 정읍시보건소/시립미술관)